

“시페퍼스, 승리의 도약 하겠다”

프로배구 V-리그 개막미디어데이…2년차 장소연 감독 ‘출사표’
“꺾여도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 ‘이기고 싶은 팀’은 GS칼텍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여자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강남구 호텔 리베라 청담에서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를 열고 7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새 시즌 각오를 전했다.

페퍼스에서는 장소연 감독과 새로 주장에 선임된 고예림, 아시아쿼터 시마무라가 참석해 ‘승리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장소연 감독은 팀 ‘가훈’으로 “Step up to win (승리를 위해 도약한다)”을 발표하며 “중꺾마 대신 중꺾도마이다. 중요한 건 꺾여도 도전하는 마음이다. 우리 팀에 중요한 마음(가져야할 자세)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이번 시즌 ‘무조건 이기고 싶은 팀’으로 장소연 감독은 GS칼텍스를 꼽았다.

그는 “지난 시즌 막판 순위 경쟁에서 아쉽게 놓친 부분이 있었다. GS칼텍스를 잡았다면 올라설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웠다”며 지목 이유를 설명했다. 팬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솔직한 답변을 내놔다.

아쉬운 경기를 치른 후 차분해지는 방법을 묻자 장소연 감독은 “차분해지기는 쉽지 않다. 대신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경기를 복기하고 다음 경기를 구상한다”고 말했다.

시즌 도중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선 “결국 팀 안에서 더 단단히 뭉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 (이번 시즌) 시마무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고참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줄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즌 주전 외에 기대하는 선수로는 아시아쿼터로 새롭게 합류한 ‘일본 국가대표’ 출신 시마무라를 꼽았다.

장 감독은 “가운데에서 점유율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코트 안에서 베테랑만의 기술과 배구를 일하는 태도 등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즌 여자 배구에 불었던 베테랑 선수 이적 바람도 주목된다.

현대건설을 떠난 이다현(흥국생명)을 비롯해 고예림(페퍼스), 레티치아 모마 바스코(도로공사) 등이 새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 선다.

현대건설을 떠나 페퍼스로 이적한 고예림은 “친정팀과 만나게 돼 재미있을 것 같다. 특별히 이기고 싶다가보다 즐겁게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진에어 2025~2026 V-리그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정관장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4월 9일까지 대장정이 이어진다.

정규리그는 총 6라운드로 팀당 36경기(홈&어웨이)가 치러지며, 준플레이오프(단판승), 플레이오프(3전 2선승제), 챔피언결정전(5전 3선승제)로 우승팀을 가린다.

새 시즌엔 경기 규칙에도 변화가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맞춰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중간 랠리와 그린카드 제도가 폐지된다.

페어플레이를 위해 불필요한 경기 지연 시간을 줄이고자 도입되었던 그린카드는 주심의 비디오판독 시그널 전 선수가 먼저 자진 반칙을 인정하면 주어지는 것이었다.

또, 서브 팀의 선수 위치 자유 변경과 스크린 반칙이 새롭게 적용된다.

서버가 볼을 토스하기 전 서브 팀 선수는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고, 리시브 팀은 토스 순간부터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스 크린 반칙의 경우 서브 팀 선수는 공이 네트 수직면을 넘을 때까지 머리 위로 손을 올릴 수 없고, 주심 시야 기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페퍼스는 페퍼스타디움에서 최하위 탈출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페퍼스는 21일 오후 7시 한국도로공사와 홈에서 개막전을 갖고 팬들과 함께 도약의 첫 발을 내딛는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16일 서울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정관장 고희진(왼쪽부터)·현대건설 강성형·IBK기업은행 김호철·흥국생명 요시하라 토모코·페퍼저축은행 장소연·한국도로공사 김종만·GS칼텍스 이영택 감독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영 5년만에 LPGA 우승하나

LPGA BMW 챔피언십 1R 10언더파 단독 1위

김효주 2위·이소마 7위…임진희·김아림 12위

‘영양 출신’의 김세영이 안양에서 5년 만의 LPGA 우승 도전을 시작했다.

김세영이 16일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LPGA(미국여자프로골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3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8개를 낚으며 10언더파 62타로 단독 1위에 올랐다.

2020년 11월 펠리컨 위민스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통산 12번째 우승 이후 정상상을 밟지 못했던 김세영은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1번 홀(파4)을 버디로 처리한 김세영은 6번 홀(파5)에서 기분 좋은 이글을 낚으면서 선두권 싸움에 나섰다. 3m 이글 퍼트에 나선 김세영은 홀을 스친 공이 잠시 멈춘 뒤 그대로 떨어지자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세를 이은 김세영은 7번 홀(파4), 8번 홀(파3), 9번 홀(파4)에서 모두 버디를 잡아냈다.

10번 홀(파4)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에 홀을 지나치면서 버디 행진이 중단됐지만, 김세영은 11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면서 타수를 줄였다.

13번 홀(파3)과 15번 홀(파3)도 깔끔한 버디로 장식한 김세영은 마지막 18번 홀(파4)도 버디

로 마무리하면서 10언더파로 1라운드를 끝냈다.

김효주도 이글 1개, 버디 7개를 더한 9언더파 63타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7번 홀(파4)에서 아이언샷으로 이글을 장식한 김효주는 12번 홀(파5)·13번 홀(파3) 그리고 17번 홀(파5)·18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등 쾌조의 출발을 했다.

린디 던컨(미국)이 8언더파 64타로 3위에 올랐고, 다케다 리오(일본)·브룩 리슈스(미국)·잔네티 완나센(태국)이 7언더파 65타로 공동 4위에 랭크됐다.

이소마는 6언더파 66타로 공동 7위, 임진희·안나린·김아림은 5언더파 67타로 공동 12위, 유해란과 최혜진은 4언더파 68타로 공동 22에 자리했다.

‘디펜딩 챔피언’ 해나 그린(호주)은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수확하며 4언더파 68타로 공동 22위를 기록했다. 13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장식한 루시 리(미국)도 4언더파 68타를 써내면서 공동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대회장엔 9720명의 갤러리가 찾아 호남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LPGA 경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세영이 16일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라운드 15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A매치 최다 출전’ 손흥민 팀 복귀

19일 MLS 정규리그 최종전

대표팀에서 역대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최다 출전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이 소속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FC로 돌아가 마지막 순위 경쟁에 힘을 보탠다.

손흥민의 LAFC는 오는 19일 10시 콜로라도 래피즈와 MLS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던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의 ‘홍부 듀오’가 전열에서 빠진 사이 6연승이 끊긴 LAFC로서는 남은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경기다.

LAFC는 홍부 듀오가 A매치 기간 국가대표팀에 차출돼있던 지난 13일 오스틴FC에 0-1로 져 우승 경쟁에서 밀려졌다.

정규리그 1경기만 남겨놓은 가운데 서부 콘퍼런스 1위(승점 63)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격차가 승점 4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승점 59의 LAFC가 최종전에서 콜로라도를 꺾고, 2위 샌디에이고FC(승점 60)가 최종전에서 패하거나 무승부를 할 경우 순위 역전에 성공할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브라질전, 14일 파라과이전에 모두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했다.

‘삼바축구’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137번째 A매치를 소화하며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출전 단독 1위에 오르는 뜻깊은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A매치 평가전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이지만, 부앙가와의 호흡은 위협적이다. 손흥민과 부앙가는 최근 함께 뛴 6경기에서 17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이 7골, 부앙가가 10골을 넣었다.

한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는 ‘한국 국가대표 데뷔’가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의 태생 현혈 태극전사’ 옌스 카스트로프의 소속팀 보루시아 뮌헨글라트바흐는 18일 오전 3시 30분 정우영의 소속팀 우니온 베를린과 맞붙는다.

지난 3월 발목 골절로 시즌 아웃되고, 이후로 국가대표 소집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 한 정우영은 이번 시즌 개막 후 5경기를 교체로 뛰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직전 레버쿠젠전에서는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에 약 64분을 소화하기도 했다.

카스트로프는 소속팀 최근 두 경기를 선발 출전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 축구 대표팀의 친선경기. 손흥민이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 풀타임을 소화하는 등 임지를 넓혀가는 중이다. 첫 풀타임을 소화한 지난날 28일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표팀 베테랑들도 분데스리가 소속팀 경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브라질과 친선경기를 통해 100번째 A매치에 출전한 이재성의 소속팀 마인츠는 18일 오후 10시 30분 레버쿠젠을 상대하고, ‘철기동’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19일 오전 1시 30분 도르트문트를 상대한다.

이번 A매치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영건’들이 주말 소속팀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관심을 끈다.

남미의 ‘북방’ 파라과이를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A매치 2호 골을 기록한 엄지성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스완지 시티로 복귀해, 18일 오후 8시 30분 사우샘프턴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널 향방 결정” 광주FC ‘운명의승부’

18일 K리그1 33라운드 울산전…이긴 뒤 강원 결과 지켜봐야



광주FC가 ‘운명의 승부’를 위해 울산으로 간다.

광주FC는 18일 오후 2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HDFC를 상대로 K리그1 2025 3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파이널라운드에 앞서 진행되는 마지막 경기이자, 남은 시즌 향방이 결정되는 승부다.

광주는 11승 9무 12패(승점 42)의 전적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다. 파이널A 마지노선인 6위를 위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광주가 울산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6위 강원FC(승점 43)의 패배나 무승부를 기대해야 한다. 무승부에 그치더라도 희망은 있다. 강원이 패배를 할 경우 득점을 따져 6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광주가 34골을 넣으면서 30점의 강원에 앞서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질 경우 광주는 7~12팀들이다투는 파이널B에서 강등 전열을 벌여야 한다.

일단 이기고 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광주는 A매치 기간 짧은 휴식 후 울산전을 준비했다.

지난 11일에는 영남대와 연습경기를 진행하면서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이 경기에서 이민기, 김한길 등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이상 무’를 앞섰고 문민서, 안혁주, 최경록, 헤이스 등 주요 공격 자원들도 골맛을 보면서 6-0 대승을 거뒀다.

광주의 6위 탈환 여부와 함께 ‘울산 벤치’도 이번 경기의 관심사다.

지난 8월 성적부진으로 사령탑에서 물러났던 김판곤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들었던 신태용 감독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로 진행되는 첫 경기로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전북월드컵경기장은 ‘우승 축포’를 기다리는

전북팬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북현대는 같은 시간 홈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올 시즌 마지막 정규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전북은 현재 20승 8무 4패(승점 68)의 성적표로 2위 김천상무(승점 55)를 따돌리고 선두 질주를 하고 있다.

이번 수원FC전 포함 파이널라운드 일정까지 남은 6경기에서 2승을 더하면 전북은 김천의 남은 성적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일찍 삼패인을 터뜨릴 수도 있다.

전북이 수원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안양FC를 상대하는 김천이 패하게 되면 2025시즌 우승팀은 전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2018시즌 이후 7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파이널 라운드에 앞서 K리그1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전북은 최창희 감독이 지휘하던 2018년에도 33라운드에서 우승 도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